

25 요한복음: 예수님과 진리의 성경 말씀은 받아들이기에 너무 쓰고 아프다
성경말씀: 요7:40-53

어제 토요일 아침 출근, 의정부의 한정재 어르신 전화, “목사님, 지난 주 설교 너무 감사했습니다. 교회로 못 모여도 제 배에서는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교회 미디어 사역 덕분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교회에 오지 못해도 교회 설교 듣고 찬송 듣고 교회에서 보낸 주는 성경 읽기 과제 하고 성경 퀴즈 풀고 답 맞추고 합니다. 매우 기쁩니다. 제 나이가 89세인데 지난 5년 동안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더욱이 세대주의가 무언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dispensation 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말씀 전해 주세요. 우리 교회 미디어 선교가 저를 살리고 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시공간을 초월해서요. 감사합니다!”

요즘 저의 상황: 지난 5년 동안 매일 전 시간을 성경 교정하는 데 쓰고 있다.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니 더욱 더 그렇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도 재미없는 무미건조한 삶, 스트레스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와중에 매주 3편의 설교, 강해를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이것을 준비하고 설교하는 시간이 내게는 가장 큰 즐거움

특별히 요한복음, 에스라 맥잡기, 공산주의 바이러스 공부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피상적으로 읽던 성경을 배경을 알고 문맥 안에서 읽고 강해하니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더욱이 위어스비 목사님을 비롯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남기고 간 영적 유산들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기쁨이 되는지 모른다. 부족한 사람이 공부해서 선포하는 말씀에 감화를 받고 기뻐하는 성도들이 있고 불신자가 구원받았다는 소식을 접하면 더욱 기쁘다.

지난주에는 암으로 고생하는 세 분께 전화해서 위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 더욱 기뻐다.

성경 출간이 이루어진 뒤에는 더욱 더 성도들과 함께하는 목회를 하려고 생각한다. 아마 내 아내와 가족들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오늘은 <예수님과...너무 쓰고 아프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 사람들이 확연히 분리되는 것을 살펴보려 한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의 전조를 보며 기뻐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대비하기도 해야 한다.

지난주 설교 요약

7장부터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공적인 시도가 이루어짐, 그래서 갈릴리에 머무심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장막절, 가장 정확한 시점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심, 명절의 맨 마지막, 가장 큰 날 제사장과 백성은 가장 큰 행사 진행, 제사장이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금 물통에 물을 담아가 제단 위에서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물을 부음. 사람들의 갈증,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음성(37-38).
우리 주님의 3년 반 공생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순간들이 있었다. 그런데 37-38을 말씀하시는 순간은 정말로 중요하고도 중요한 순간, 수많은 유대인들, 제사장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 마디로 구약 시대는 가고 이제 신약 시대가 왔다는 선언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 바치고 정결례 의식을 행하고 물을 뿌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예표
그러나 이제 참 제사장, 참 희생예물이신 주님이 실제로 오셨음을 선포함
히9:9-10
히10:1-4

이런 의식으로는 너희의 영적인 갈증을 채울 수 없다. 이제 예표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배에서 영원히 솟아오르는 생수의 강들을 줄 것이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순간이다. 구약과 신약의 분리를 말한다.

그분의 죽음 부활, 승천, 성령님(39)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는 받아들이기에 너무 쓰고 아프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수를 주시고 흘러넘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을 적시게 하신다.

이런 엄청난 진리를 들은 뒤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쳤을까?

예수님의 선포 이후 사람들 가운데 분열이 생겼다(40-44).

1. 그분은 그 대언자다(40), 2. 그분은 그리스도이다(41), 3.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시겠느냐(41), 베들레헴에서 나오신다(42). 분열이 생김(43).

1. 그분은 그 대언자(신18:15-18), 가나안 입성 직전, 모압 평야, 자기와 같은 대언자를 주신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베드로의 설교(행3:20-22)가 말하듯이 모세는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였다. 그의 말을 듣지 않는 백성은 멸망당한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분을 그 대언자로 여기지 않았다. 요1:11-12

2. 그분은 그리스도이다. 정확한 판단

3. 다른 사람, 그분은 좋은 사람인데 그리스도는 아니다. 그리스도는 베들레헴, 그러나 그는 갈릴리 그들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 출생, 다만 그 이후 갈릴리 거주 예수님과 그분의 선포를 두고 심각한 분열이 생김(43)

이미 예수님은 예고하셨다(마10:34-35). 눅12:51-52

예수님은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 평화의 통치자

그런데 우리의 죄악, 이기심, 편견, 무지로 인해 그분이 들어가면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 분열이 생긴다. 자동으로 그렇게 된다.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면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생긴다.

미국 캐나다에는 록키산맥이 있다. 이 산맥 위에 비나 눈이 내리면 반드시 서쪽으로 가든지 동쪽으로 간다. 중간에 남을 수가 없다. 그리고 결코 다시는 만나지 않는다.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가 이와 같다. 반드시 분리가 생긴다. 우리는 빛나는 새벽별 예수님 편에 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루시퍼 편에 서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런 분리는 매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

정치, 경제, 도덕과 윤리, 교육, 교회 선택, 심지어 음식 섭취, 집 직장 선택의 문제 옳은 것을 택해야 한다.

“요즘 예수님 때문에 제 삶에 변화가 생겼어요.” “기침하는 사람, 도망가는 사람(병원 약속, 개밥 주어야 한다 등등), 경멸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 믿고 변화된 삶을 무덤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OK

그러나 열정적으로 확실하게 말하면 분열이 생긴다.

분열이 생기는 이유: 그분과 그분의 말씀을 수용하면 삶의 방향이 바뀐다.

인생관, 가치관, 역사관, 세상관의 변화

현시대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다.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고 가르친다.

6000년 전 창조, 6일 창조, 죄, 하나님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하나님의 말씀 보존, 부활, 영원한 생명, 이 땅에서 교회의 영원성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심지어 그분을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44). 그분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감히 손을 대지는 못한다. 왜 아직 때가 오지 않아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처한 현실이 이렇다.

1880년 조선은 개화기를 맞는다. 그때부터 일제 36년, 대한민국 건국, 6.25 승리, 대한민국 발전 이 모든 것은 교회와 함께 이루어졌다.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과 교계 지도자들의 대화, 대통령도 인정하였다. 교회 혹은 기독교가 이룬 가장 중요한 것: 대한민국 헌법, 미국의 자유 민주주의 헌법, 국민의 7-80퍼센트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러나 하나님은 기독교 성도인 이승만을 사용해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 확립, 이것으로 인해 지금의 모든 것을 누리게 되었다.

헌법, 교육, 의료, 국방, 안보, 경제 등 모든 것이 기독교의 가치와 문화에서 나온 것들이다.

이 땅의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 완전하지 않다.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나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국에 6만 개 교회. 소수에 불과하다. 소수 교회의 문제를 모든 교회의 문제로 확대해석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여러 사람이 지적하듯이 전체주의 발상이다. 여러 사람들이 과학을 이야기하는데 진짜 과학은 무엇인가?

1. 바이러스의 근원지인 중국 사람들 제때 차단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 이것이 과학이다.
2. 버스, 지하철, 노래방, 목욕탕, 해수욕장, 비행기, 에버랜드, 오페라 공연 등, 집단 휴가, 공짜 영화 관람권 등 정부 배포,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 창궐의 원인, 이것이 과학이다.
3. 팩트: (*) 8월 28일 동아일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다”> 기사,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코로나19 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깜깜이 감염, 8월초 휴가, 집단 이동, 말 그대로 방역 실패로 이제는 누구든지 어디서나 언제라도 코로나 19에 감염될 수 있다.

한 사람의 하루 동선, 집, 엘리베이터, 버스, 지하철, 영화관, 직장, 커피숍, 교회, 어디서 감염되는지 어떻게 아는가? 심지어 아파트에 있는데도 공공 환기구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 발생함
그러므로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아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된다. 비과학적이다.

엄청난 핍박, OO제일교회 심OO 목사님, 8월 26일 금요일,
저희 교회 주변과 마을에 드디어 물리적 공격이 시작 되었습니다. 휴~~~

(*) 그런데 전 근심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가 흥미롭네요.

승리 했습니다. 저희 교회 휘방 현수막 20개 모두 구청에서 철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19 방역과 퇴치를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과 국민, 여야, 좌우, 기독교, 비기독교
남 탓하는 것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교회들은 더욱더 방역에 신경 쓰고 거리 두기 등을 유지할 것이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므로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828/102684358/1>

예수님의 말씀,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마16:18). 어떤 핍박도 교회를 이길 수 없다.
역사의 증언, 하나님의 기관이므로. 유한한 창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과 싸우지 않기를 바란다. 속히 다음 주부터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정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께 간구한다.

예수님을 배척함(45-53)

예수님은 장막절에 행사가 열리는 뜰에 나타남, 그러자 아마도 제사장들은 그분을 붙잡으라고 성전 경비 부대원들을 보냄.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위대한 말씀을 하심. 그들은 그분을 붙잡지 못함
이들이 돌아가니 바리새인들/수제사장들이 물음(45)

그들의 대답(46), 말 그대로 정직한 대답

“군중들이 돌을 던질까 봐 무서웠습니다.” 등의 변명 가능

그러나 그들 역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압도되었다.

그분을 붙잡으러 갔다가 그분께 붙잡히고 말았다.

종교 지도자들과 경비 군사들의 차이: 전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 듣지 않는다.

그러나 후자는 편견이 없이 명령을 수행하러 갔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그 결과 그분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바리새인들의 응답(47). 그가 너희도 속였느냐? 예수님과 교회는 속이는 단체가 아니다.

종교인들 가운데 그를 믿는 자가 어디 있느냐?(48) 자기들이 판단의 기준

우리는 이런 것 믿지 않는다. 유명한 목사의 말이라 해도 성경에 맞지 않으면 쓰레기통으로 보낸다.

그리고는 저주를 퍼붓는다(49).

그들의 주장: 영적으로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결코 그를 믿지 않는다. 무식한 자들만 그를 믿는다.

지금도 세상은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아니다!

이때에 니고데모가 나선다(50-51). 가장 뛰어난 학자, 정치 지도자, 얼마나 좋은 질문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보고 그분의 행적을 본 뒤에 판단해야 하지 않느냐? 24절.

종교 지도자들 흥분함. 그리고 반박함(52)

너무 화가 나서 역사를 잊어버림. 갈릴리에서 나온 대언자가 있다. 요나
군중을 무식한 자들이라고 하다가 자기들의 무식이 드러나고 말

해리 아이언사이드라는 유명한 목사, 나는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읽은 뒤 예수님과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기독교를 알지도 못하면서 거부한다.

경비 부대원들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46).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니고데모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변화되었다.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대답을 기독교에서 들을 수 없어 기독교를 거부합니다.”

우리의 대답: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 보았는가? 아무 것도 모르는 군사들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는 46절처럼 말하지 않는가?

교회를 핍박하지 말라. 교회가 말하는 것을 들어 보라. 얼마나 과학적이고 논리적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만 말한다.

결론

세상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적그리스도의 세상 대비, 예수님과 성경 그리고 교회에 혹독한 비판,
핍박이 가해지고 있다.

쓰나미 같은 핍박에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동조하고 있다. “코로나 확산은 교회 때문이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앞으로 예수님과 기독교와 교회로 인해 더 큰 분열이 이 땅에 생길 것이다.

가장 큰 이유: 들어보지 않아서, 그분을 몰라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모든 것,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둘로 확연히 구분된다. 왜? 진리는 수용하기에 쓰다(요3:18-20).

자기들의 무지와 죄악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37-38절 말씀

어떤 핍박이 와도 생수의 강들이 배에서 솟아오른다.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진다.

이런 생명의 강물, 진리의 강물이 영원토록 우리 성도들과 과학과 진리를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한다.

자유 대한민국을 허락하고 세워 주신 하나님께서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예배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소유권의 자유 지켜 주실 줄로 믿는다.

코로나 19에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다.

질병 퇴치 위해 수고하는 모든 공무원들, 하나님의 은혜